



동우컴퍼니

추석 잘 지내세요

나이가 들면서 가족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한다. 젊어서는 느끼지 못했던 애뜻함이 어머니와 형제들에게 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된 후로 우리 가정에는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풍파가 있었
다. 특별히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황망했
을까 요즘 생각한다. 사업 잘하던 아들이
갑자기 예수에 미치더니 목사가 되어 재산
을 다 팔아대고, 제사도 못 지내겠다고 집
을 나갔으니…. 또 7남매 중 제일 말 잘 듣
던 셋째 아들도 회사를 그만두고 예수에
미쳐 형 좇아 목사가 되었으니 억장이 무
너졌으리라. 지금이야 우리 어머니도 예수
를 믿고, 명예 권사까지 되셨으니 다 옛말
이 되었지만, 어머니의 마음에 심한 생채
기를 낸 것에 대해 두고두고 아픈 마음이
남아있다.

올해로 94세이신 우리 어머니, 얼마나 더
사실지 모르는 어머니께 내가 꼭 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 어머니의 성함을 따 ‘충
훈교회’라는 작은 교회를 지어드리는 일이
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이 작은 교회라
도 하나 지었노라’ 내놓으시라고 그리 마
음을 먹었다. 물론 아들 셋을 목사로, 딸
을 전도사로 내놓으신 상도 더불어 받으
실 테지만….

지금은 명절 때면 우리 가족은 모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린다. 그게 그렇게 감사하다. 과정은 힘들었지만 우리 가족들이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눈물 나도록 감사하다.

최고의 효와 우애가 무엇일까? 바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도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마12:50)고 하셨다.

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바란다. 함께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찬양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번 추석이 기회다. 추석에 밋지 않은 부모와 형제에게 예수를 전하자. 물론 과정은 다소 시끄럽고 껄끄러울 수 있지만, 결과는 내가 지금 느끼는 대로 너무 아름다운 것이 될 것이다.

즐거운 추석 맞으세요!

지난주일 목사님은 인천교회에서 오전 예배를 인도하신 후, 오후에 서울로 올라 오셔서 4부 예배도 인도하시며 진정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목소리를 높여 말씀하셨다.

“지금 대한민국호를 위협하는 파도가 안팎으로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난주에도 강조했듯이 이는 영적전쟁입니다. 그래서 국가와 민족의 앞날을 위해 우리 교단부터라도 기도하자고 봉합불을 드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거라는 민주주의 제도를 통하여 현 정부에게 국민의 권력을 위임했습니다. 좋은 섹트,

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역사를 더욱 발전시켜 평화롭게 통일된 한반도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오늘의 위기를 잘 극복해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딤후 2:1~2)고 말한 것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이 정부를 이끌고 있는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란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지혜를 모아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다 위기를 역전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서울시청광장에 모여 이 나라의 위기를 역전시켜달라고 전능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려 합니다. 왜 부르짖냐고요? 하나님께서 그리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가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렘33:2~3).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 복잡하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하면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하면 쫓으면 되는 것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라 하면 얹으면 되



국가와 민족의 앞날을 위해 다같이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과반 이상의 지지가 아니든 국가가 정해 놓은 법을 통하여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인정하고 현 정부가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응원하고 기도해야할 책무가 우리에게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호를 이끌고 있는 선장이 배를 잘못 이끌어가게 된다면 우리 모두가 타고 있는 이 거함이 좌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 오늘에 이른 나라입니까? 우리 믿음의 선전들의 순교의 피가 이 땅을 적셨고,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피 흘려 지켜온 나라이며,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경제 발전에 매진하고, 불의에 맞서 싸우며 오늘의 민주주의와 산업대국의 역사를 이

합니다. 개인의 사리사욕이나 권력욕에 사로잡혀 국가 대사를 그르치거나 국정을 농단하는 일이 없도록, 또한 국제외교 문제에 있어 진정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말하지만 이 나라는 어느 개인의 나라가 아니요, 우리 모두의 나라이고 우리 후손들이 세대를 이어 살아가야할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국가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먼저 우리 교단이 앞장서서 기도해왔고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우리 기도에 놀라운 역사로 응답해주신 것을 여러분들은 다 같이 목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더 좋은 길로 인도해주시는 분이요, 우리가 애통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는 것입니다(막16:17~18). 명령한 자가 책임집니다. 우리는 단지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엉덩이에 빨난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 따지고 저리 따지는 겁니다. 겸손한 자는 오직 순종뿐입니다.

우리 겸손하게 무릎 꿇고 그분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위기에 처한 국가와 민족의 앞날을 위해 모두가 합심하여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길로 인도하사 이 위기를 대역전의 역사로 응답해주실 것입니다.”

한은택 목사

henry8829@naver.com

40일간 작정기도회 8월 22일(목) - 9월 30일(월)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성회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고전10:19~22)

신앙에는 타협이 없다

많은 성도들이 명절이 다가오면 고민에 빠져 상담을 하러 옵니다. “시택이 믿지 않아서 제사를 지내는데 어떡하죠?”, “저는 제사에는 참석하지 않지만, 음식장만은 해야 하는데 그 정도는 괜찮나요?”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나 제 대답은 확고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제사 음식을 장만하는 것도, 제사 지내라고 돈을 내는 것도 안 됩니다. 도둑놈들이 남의 집을 털 때 망을 보는 자나, 담을 넘는 자나, 장물을 내다 파는 자나 다 같은 도둑이니까요.” 왜 여러분의 난처한 처지를 못 헤아리겠습니까? 다 압니다. 그러나 인정 때문에 허락할 수는 없습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아닌 건 아닌 겁니다.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신앙만은, 그것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는 일만은 안 됩니다. 여러분이 힘든 줄 알지만, 제사를 거부하는 당신으로 인해 명절 내내 가족 모두가 불편할 줄 알지만 ‘그래라’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여러분, 명절 때면 늘 이 설교를 해왔습니다. 이제는 귀에 딱지가 앉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 설교를 또 하고, 앞으로도 계속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봅시다. 남편이 외도하고 와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어쩔 수 없었어. 안 해야 하는 줄 알지만 진짜 그럴 수밖에 없었어.” 한다면 “그래, 어쩔 수 없었겠지.” 하며 용서합니까? “안 해야 하는 줄 알았으면 안 해야지, 무슨 핑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럼요. 해서 안 되는 줄 알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사드락과 메삭, 아벳네고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는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진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고, 다니엘도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금령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안 해야 하는 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한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들의 대쪽 같은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더욱 높이셨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있지요.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사랑하는 여인이 원하니까 그냥 눈감아 준 경우입니다.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린 자로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었고, 건강과 재물을 아울러 얻은 자였으나 사랑하는 이방 여인들을 첩으

로 들이면서 이방 여인들이 들어온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몰락을 위하여 산당을 짓고 그것들에 분향하며 제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보시고 진노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의 언약과 내게 네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복에게 주리라”(왕상11:11). 우상을 숭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솔로몬 후대에 나라가 찢기었고, 솔로몬의 군대 장관이었던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열 지파를 규합하여 북



총회장 이초석 목사

이 스라엘을 세우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이끌고 남유다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일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이스라엘에 언제 외침이 있었습니까? 주변국이 강대해졌을 때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였습니다. 오죽하면 십계명 중 첫 계명으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출20:5~6)고 경고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상 섬기는 일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단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 또 여기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더디 내려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섬기고 있었습니

다. 화가 난 모세는 시내산에서 받은 증거판을 깨트려버리고 금송아지를 불살라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자손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屠戮)하라 하셨느니라”(출32:27)고 하였습니다. 우상숭배한 자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날 모세의 말을 듣고 레위사람이 죽인 숫자는 3천 명가량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각 사람이 그 형제 죽인 것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출32:29). 우상숭배자들을 죽인 것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것, 제사 지내는 일을 싫어하실까요? 제사는 귀신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고전10:20). 안 믿는 사람들이 제사 지낼 때 ‘할아버지 귀신이 왔다, 할머니 귀신이 왔다’ 합니다. 저도 제사는 지내봐서 아는데, 제사를 지낼 때 지방이라는 것을 써서 제사상에 올려놓습니다. 그 지방을 보면 ‘故 아무게 神位’라고 씁니다. ‘신위(神位)’는 ‘죽은 사람의 영이 의지하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이는 조상을 단순히 사람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신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곁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곁하여 참여치 못하리라”(고전10:20~21)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앉은뱅이를 고쳤을 때 사람들은 바울을 허메라 부르면서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왔다며 제사를 지내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행14:15) 하며 제사를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결단할 시간입니다. 삼사대의 저주를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천대의 복을 택하시겠습니까? 생사화복은 항상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선택해야 합니다. 어느 쪽을 택하든지 당신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저는 과감히 후자(後者)를 택했습니다. 장손으로서 제사상에 숟가락을 쏙고 젓가락을 두드렸던 제가 하나님을 알고는 제사를 지내지 않았습니 다. 그래서 집에서 쫓겨났고, 어머니와 원수가 되었습니다만 이것만은 타협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힘든 세월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머니도 예수를 믿게 되었고, 두 동생이 목사가 되는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핍박을 기뻐하라 그날에 상이 크다

여러분! 조상을 잘 섬기는 것은 살아생전에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출20:12)고 하셨습니다. 수직적 첫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이고, 수평적 첫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살아계실 때 잘하라는 겁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뭇자리 잘 잡고, 제사상 높게 차지지 말고, 살아계실 때 고기 한 번이라도 사드리고, 용돈이라도 드리고, 한 번 더 찾아뵈라는 겁니다. 또한, 효 중의 최고 효도는 믿지 않는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을 예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최고의 효도요, 그분들을 가장 잘 모시는 것입니다. 추석은 죽은 조상에게 제사하는 날이 아니라 온 가족이 모여 풍성한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절입니다. 온 가족이 모여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시겠습니까? 그런 가정에 축복과 은총을 쏟아부으시겠습니까? 부디 그런 날이 여러분의 가정에 속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시115:8). 할렐루야!

:: 객원컬럼 ::

:: 겨자씨만한 믿음 ::

오직 예수 이름의 명예를 위하여

하나님은 명예를 가지신 조물주이시다. 이 세상에는 신들이 수없이 많지만, 명예와 함께 스스로 존재하는 신은 없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명예 없는 신을 섬기지만 우리는 명예의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다(마1:21, 요17:11). 이와 같이 예수라는 이름은 본래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 이름을 아들에게 주셨고, 아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오신 것이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입으로 받은 하나님의 이름에 있다. 우리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명예에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삶이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룩한 생활인 것이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세상과 싸웠다. 하나님의 아들의 명예를 위하여 불의를 용납지 않고 마귀와 싸웠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수의 교회 회원이라는 자부심과 긍지와 책임을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지 않는다. 십계명 가운데도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의 명예를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신다. 교회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분의 엄청난 명예를 가지고 있는 곳이다.

주님은 병 고치는데도 내 이름으로 손 얹고 기도하라고 하신다. 곧 병도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고치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육체를 고침 받으려 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남은 생을 아버지의 명예를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나의 육체를 고쳐주소서, 나를 고쳐주시면 이제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당신을 위하여 노력하여 세상을 이기겠으며 당신의 명예를 위하여 죽도록 헌신하겠습니다' 하니 도와주소서!' 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명예를 부여받았다. 지구상의 그토록 많은 종교 가운데 교회만큼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입으로 부여받고 있다. 만약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무시한다면 존재할 가치가 없다. 교회가 이 세상의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지금까지 계속 존속해온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의 명예를 이어받은 자들이 그 명예를 지키려고 죽기까지 투쟁했기 때문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명예를 손상시키려고 하는 세상의 어떠한 박해와 도전도 능히 대항하면서 명예를 지키려고 목숨을 거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시고 영화롭게 생각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아버지의 뜻대로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죽기까지 순종했던 예수를 좇아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신기류 목사
abba7777@naver.com

:: To Be Succeeded ::

믿음의 사람들

우리나라 복음의 역사를 보면 놀랍게도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수만 권의 한글 성경이 제작, 배포되어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왔을 당시에는 벌써 수많은 조선인들이 선교사가 와서 세례를 베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고, 이렇듯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과 미리 뿌려진 말씀의 씨앗을 기반으로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으며 그때부터 폭발적인 부흥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반만년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암흑의 일제강점기, 가슴 저린 동족상잔의 비극과 외환위기를 비롯하여 크고 작은 위기를 겪은 이 나라는 단순한 시각으로 보면 고난과 어둠으로 점철된 듯하다. 그러나 흑암을 이기고 마침내 광복을 맞이하고, 전쟁으로 폐허가 됐음에도 전 세계에 그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급성장을 이룬 것에서 나아가 성공적으로 올림픽을 치러냈을 뿐 아니라 온 국민이 마음과 힘을 모아 IMF를 극복해내는 모습을 보며 전 세계는 그 저력을 인내와 끈기로 대변되는 우리 민족성에서 찾기도 했다. 그러나 그 저력은 단연

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사 선교국가로 사용하시려 이 나라를 더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까지의 역사를 통하여 잘 알고 있다. 복음이 들어온 후부터 나라에 위기가 올 때마다 믿음의 선전들의 피눈물 어린 기도와 핍박과 위협을 이겨낸 순교는, 그때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을 움직였고, 그 역사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악한 마귀는 지금도 개인과 가정, 교회, 사회 곳곳에서 우리를 속이며 분열과 분쟁을 일으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파괴하려 혈안이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가 깨어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악한 마귀의 화전을 소멸해버리고 화평을 이룰 때,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승리를 얻을 것이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고, 소망하며, 기도하고, 선포한다.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손에 들린 복음의 도구로 우뚝 서기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행복한 나팔수로 이 땅에 살아가기를!

이국진 사모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

사람이 게임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게임은 명확한 보상이 수치화되어서 주어지기 때문이다. 조건을 만족시키면 주어진 보상을 얻기에 사람들이 게임에 빠진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현실 세계는 불확실하다. 무언가를 했다고 해서 적절한 보상이 따르지 않을 수도 있고, 반대로 얻었던 것들을 잃을 수도 있다. 앞날을 정확히 안다면 현재 상황이 좋지 않아도 순간순간을 기대로 채울 수 있지만 불확실하기에 그 기대는 두려움으로 변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5년째가 되어 열매를 먹기까지의 그 기다림,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25년의 기다림. 그 기다림은 어떠한가? 원하는 것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기에 지루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웠

을 것이다. 도종환 시인의 시구처럼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는가. 그 고통을 감내하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으며, 아브라함은 기다림으로 아들을 통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는 거저 얻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견디는 인내와 하나님께 순종하며 기다릴 때 삶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에게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약속에 대한 기다림이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어도 인고의 시간을 지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더 단단한 믿음이 되기를 기도하자.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애3:25~26).

김성일 집사



:: 삶이 있는 이야기 ::

Only believe!

얼마 전 딸아이가 위인전 '베토벤'을 읽다 말고 책을 덮더니 한숨을 푹 쉬면서 말했다. "이제 베토벤은 완전히 망했어요. 귀가 안 들리거든요." 당황한 나는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을 들려주며 다시 읽어보라고 격려해줬다. 웃으며 지나친 일이지만, 한숨을 쉬며 책을 덮는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때때로 닥쳐오는 인생의 어둠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회당장 아이로는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 믿음으로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간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동안 드라마틱한 사건이 벌어진다. 오랫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만을 만지고도 깨끗함을 받은 것이다. 그 장면을 목격한 아이로의 마음속엔 기대감이 가득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때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불등고 있던 희망의 빛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나였다면 극도의 두려움과 절망감에 휩싸여 공황상태가 되었을 것이다. '혈루증 여인은 고치셨는데 내 딸은 왜...'라는 원망이 먼저 튀어나왔을지도 모른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두

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막5:36). 야이로가 할 수 있는 일은 믿음으로 절망의 발을 힘겹게 들어 올려 예수님과 함께 집을 향해 걷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예수님의 '달리다꿈' 하시는 명령과 함께 그의 딸이 살아났을 때, 그는 분명 이전과는 전혀 다른 수준의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처절한 십자가 죽음만 보고 성경을 덮어서는 안 된다. 진짜 하이라이트는 그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제자들도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그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요20:19).

모든 희망의 빛이 사라졌을 때에도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움직이고 계신다! 우리의 믿음은 절망의 어둠을 생명의 빛으로 반전시키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다. 우리는 깊은 어둠 속에도 두려움을 이기고 오직 부활의 능력을 믿으며 묵묵히 나아가야 한다. "Only Believe!"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요11:40).

이호은 사모

암 걸려서 좋아요?

“암 걸려서 좋아요?” 항암치료 중 지인이 내게 물은 말이다.

말기암 진단부터 수술 두 차례와 계속되는 항암치료 중에 항상 웃음과 평강과 감사가 떠나지 않는 것이 궁금했던 모양이다. 답을 하자면, 암 걸려서 정말 좋았다. 올 3월 초 말기 대장암을 선고받고 종합병원에서 두 차례에 걸친 대수술을 받았다. 종양의 크기는 인터넷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크고 형상은 끔찍했다. 아마 회사가 어려워지던 십 년 전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암의 씨가 된 모양이다. 그 큰 덩어리를 넣고 살았으니 뽀아내는 독소에 몸이 정상일 리가 없었을 것인데, 회사 파산 후 예수중심신학교에 입학하여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세상과 절연하고 살았으니 치료받을 처지도, 돈도 없었다. 좋지 않은 몸 상태로 신학생의 의무적인 봉사활동 때문에 힘든 상황이 계속 되었다. 당연히 눈치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힘이 드는 봉사에서는 빠지게 되어 주로 인천교회의 밤 근무를 도맡아 하며 그 시절 신학과 성경공부를 원 없이 하였으니 그 또한 은혜였다.

졸업 후 종로기도처에서 목회 4년 차, 밥을 넘기기가 힘든 고통 속에 인근 병원을 찾아 내시경검사를 하니 꼭 보호자와 같이 오라고 한다. ‘말기구나!’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웬지 모르게 느껴지는 평강은 다소 생뚱맞게 느껴졌다. 내가 현실감이 없어서일까. 가까운 종합병원을 찾아가서 내시경으로 검사하니 마찬가지로 결과였다. 암이 너무 크게 퍼져있어서 수술하기가 힘들니 항암치료를 병소를 즐기고 난 후

수술해야 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어지는 PET/CT의 결과는 전이가 없는 상태였다. 암세포가 있는 곳이 밝게 빛나는 형상인데 내 사진은 아랫배에 크게 뭉쳐있는 빛이 감사하고 경이로웠다. 그 큰 암 덩어리가 전이 없이 한군데 뭉쳐있는 것이 기적이다. 암의 크기에 수술을 주저하던 의사가 수술을 결정하여 시행했다. 소심하던 내가 어찌 그리 평안히 수술을 받을 수 있는지 신기했다. 수술을 마치고 하루 만에 봉합했던 장이 터져서 7시간의 대수술을 겪었다. 불과 일주일 만에 내시경 세 번, 수술 두 번을 감내해야 했다. 목사님께서 올 초에 지나시면서 ‘이제 너를 버려라’ 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 이런 죽음을 넘나드는 과정을 겪게하신 모양이다.

30년 전 ‘너는 목자의 길을 가라’ 하심이 뒤늦게 회사가 파산하며 30년 후에 이루어지니 내 회사의 파산은 목사님 기도 때문이다. 이시대 목사님이 내 기도를 쉬지 않으셨다는데 내용은 참으로 바닥까지 내려와 자아가 완전히 부서지기를 기도하셨다니 내가 겪는 수술과 항암치료는 이시대 목사님 덕분이다. 기도처에 한 성도분이 내가 눈이 밝아지고 겸손해지셨다고 한다. 나귀를 들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니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인증하신 것 아닌가. 총회장 목사님께서 나의 거듭남을 축하하시고 이시대 목사님도 ‘이제 되었다’ 하시니 진정 고난이 유익이다. 매일 매일이 감사일 수밖에 없는 것이 병원의 의료진은 말할 것도 없고 한의원 원장님부터 여러 간호사들을 만나게 하고

극진한 치료를 겸하게 하셨다. 물질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약초를 취급하는 심마니까지 만나게 하셨다. 항암에 좋다는 겨우살이, 말굽버섯 등 귀한 약재들을 무상으로 주어 냉장고를 꽉 채워놓고 먹고 있다. 그저 하나님의 배려는 놀라울 뿐이다. 내 운동을 도와주고 세심하게 나를 살피 주었다. 몇 주일 전에 산삼을 캐 와서 내게 가장 큰 산삼을 주었다. 성의는 고마우나 먹을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그 대신 내가 신세 진 목사님이 있으니 갚아야 될 빛이 있는 은인에게 먼저 갚게 해달라고 했다. 심마니가 놀래하면서 산삼을 앞에 두고 남 생각부터 하는 분은 처음이라고 한다. 산삼 한 뿌리를 포장하면서 새끼 삼한 뿌리를 더 넣었다고 한다. 나중에 개봉해보니 거의 같은 크기의 산삼이 들어있었다. 만나 물으니 웬지 그래야 될 것 같아서 그랬다고 한다. 마침 지인이 감동이 와서 봉투를 주었는데 산삼 값으로는 터무니없지만 내 처지를 아는 심마니는 기꺼이 받았다.

밤늦게 총회장 목사님께서 전화하셨다. “아, 이놈아. 이걸 네가 먹어야지 내게 주면 어떡하냐?” 하시며 고마워하셨다. 문득 생각해보니 나와 직접적 연관이 깊은 이시대 목사님이 마음에 걸렸다. 응답일까. 심마니가 일주일 만에 또 산삼을 캐왔다. 이번에는 보는 앞에서 드시라고 가장 큰 산삼을 꺼낸다. “아직 신세 못 갚은 사람이 있으니 이번에도 성의껏 돈을 마련할 테니 산삼 세 뿌리를 더 주시오.” 부탁했다. 이시대 목사님과 어려울 때 생활을 도와주던 친구 집사람, 집세를 지원해주

는 전 직원 출신 사장에게 줄 산삼을 배달하는데 심마니가 차를 가지고 동행해주었다. 삼을 배달하는 중에 전 직원이 봉투를 마련해주었는데 참 기가 막히게도 심마니에게 내가 주겠노라 약속했던 금액과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봉투째 전해주고 나니 마음이 어찌나 개운하던지.

주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에 조그만 부담마저도 털어주시니 앞으로 주님께서 배려하신 그 길을 더욱 기쁘게 갈 수 있겠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처, 자식 걱정 없이 인도하시니 이까짓 세상살이 뭐 그리 힘들겠습니까? 그저 인도하심대로 아니 오 없이 가겠습니다. 의사와의 진료를 앞두고 이 간증을 쓰면서 진료 호출에 면담하니 ‘최종 CT와 피검사 결과가 너무 깨끗하고 다른 모든 장기가 아무 이상 없으니 12차로 예정된 항암치료를 8차로 종료하겠습니다.’ 한다. 오 주여,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던 8차 종료를 현실로 이루게 하셨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암 진단부터 항암 종료까지 5개월도 걸리지 않았으니 놀라울 뿐이다.

이제 무슨 망설임이 있으리요. 사람에게 진 빛을 다소나마 갚았으니 앞으로의 길은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에 보답하는 보은의 길을 걷도록 인도하소서. 내가 부족할 때 주님이 더욱 드러나시니 약한 나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겸손한 종으로 거듭나게 하시니 무엇이 두렵고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주님 뵈을 그곳에 이를 때까지 그저 돌아보지 아니하고 종의 길을 묵묵히 순종하며 걷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광주 전도사

:: 한라에 핀 사론의 꽃 ::

토기장이의 꿈

나이가 들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다. 돈이 있든, 돈이 없든, 똑똑하든, 그렇지 않든,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만의 고민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과 각자 가지고 태어난 기질과 성품이 다르다는 것. 그래서 남을 크게 부러워할 것도, 부끄러워할 것도 없으며 나만이 지닌 고유한 매력에 무엇일까, 주어진 나의 그릇 모양을 찾아가며 잘 갖고 닦으면 된다는 것이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당신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믿고 있는가? 우리들의 삶에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난다. 그러다보니 때로는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된다. 혹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면 ‘하나님 뜻’이라고 오해하기도 한다.

IMF 이후 우리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던 중 대구에서 교통사고가 났다. 나는 어느 한 곳 다치지 않았지만 몰았던 차를 폐차할 만큼 큰 사고였다. 사고 소식을 전해들은 부모님께서는 “차는 중요하지 않다. 네가 다치지 않아 감사하지! 사고는 보험처리하면 되니 걱정

말아라.”하며 나를 안심시키셨다. 허나 부모님의 말씀과는 달리 모든 상황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경찰 조사결과 100% 나의 과실로 결정되어 난 가해자가 되었고, 앞친 데 댔친 격으로, 가입해두었던 자동차보험마저 설계사의 실수로 인해 운전자범위특약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여 무용지물, 그런데 이 사실을 안 피해자는 TV에서만 보았던 악덕한 사람으로 돌변해 터무니없는 위로금과 합의금을 요구해왔다. 나는 이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보험회사, 경찰서, 변호사,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 신청 등 쫓아다니며 애써왔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결국 우리 가정은 또 다시 나락으로 떨어져 단칸방으로 이사해야 했다.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난 이 모든 화살을 하나님께 쏘기 시작했다. “하나님, 도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라고 따지고, “나는 그렇다치고 부모님과 동생은 왜? 이렇게 내 가족들 힘들게 할 거면 그냥 나 데려가요.”라고 협박하고, 심지어 “이런 게 무슨 사랑이야, 웃기시네!” 하며 하나님을 비난하기까지 했다. 그렇게 몇 주간을 하나님과 전투태세로 지내던 중 직장인 유치원에서 아이들과 도예공방으

로 견학을 가게 되었다.

흔하고 흔한 흙이 단단하고 아름다운 빛을 내는 도자기로 변신하는 것이 참으로 신기해 도예가에게 도자기를 만드는 흙이 따로 있냐고 물어보았다. 그는 “일반인이 보기에는 차이가 없는 흙이지만, 흙마다 들어있는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청자를 만들 때는 철성분이 든 흙으로 빚고, 도자기는 구리성분이 든 흙으로 빚는다.”고 했다. 또한 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어떤 용도의 그릇을 만들지 계획을 세운 후, 그에 맞는 흙을 고르고, 원하는 자기를 만들기 위해 유약을 입히고 불가마에 넣어 불의 온도를 조절해가며 계획했던 용도의 도자기, 그릇, 다기 등을 만들어낸단다. 물론 흙으로 빛을 땀 계획했던 모양이 만들어질 때까지 빚어대고 때론 의도하여 표면을 눌러 자국을 만들고 흠집을 낸다고 했다. 문득 성격 속 이야기 중 ‘토기장이 비유’가 생각났다.

매일같이 하나님과 전투태세였던 나는 퇴근 후, 예레미야 18장 1~1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진흙의 역할에 대해 생각하다 조르듯 “찌그러져있는 진

흙인 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대로 최선의 것으로 만들어주실 거죠?”하며 기도했다. 나의 삶에 상처가 나고 금이 생기고 무너져 내려앉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무너져 내린 내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뜻과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밑거름이라는 것을 믿기 시작할 때 나를 만드신 토기장이를 고백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수많은 환경 속에서 내 삶에 허물을 보게 하시고, 약함을 보게 하시고, 나를 찌그러트리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어떻게 순종하고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물어보게 만드셨다. 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토기장이의 의견이 내 삶의 ‘베스트(best of best)’다. 토기장이가 낸 흠집은 흠집이 아니라 예술의 혼을 불어넣은 포인트임을 잊지 않기를 소망한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욥기 23:10). **Dr. 권정미 성도**
jmgood77@gmail.com